

OD6

## 녹지네트워크계획을 위한 녹지유형구분의 한일비교 연구

강명수\*

경기개발연구원 경제사회연구부

### 1. 서 론

자연공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녹지계획은 한정된 공간 내에서 인간과 공존해 나갈 수 있는 최대의 역할을 발휘 할 수 있는 공간을 유지·창조한다는 점에 있어서,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도시 내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소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으나, 도시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그 방향을 제시해주지 못하는 실정이다(김, 1998). 즉, 도시 안팎을 둘러싸고 있는 인간 환경 속에서 녹지로 대표될 수 있는 생태공간에 대한 구분조차도 검토되어지고 있지 않아, 어떠한 공간을 이용하여 네트워크화를 도모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제시가 어려운 것이 현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시생태환경복원의 차원에서 녹지기본계획에서 취급되어질 수 있는 녹지유형의 구분에 관한 기초연구로서, 한국과 일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선행구분들을 살펴봄으로서, 양국의 녹지공간의 유형구분에 대한 특징을 밝히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2. 본 론

#### 2.1 한국

1995년, 환경부에서 「전국 네트워크화 구상」을 수립, 발표하였으며, 이 구분은 크게 그린네트워크의 연결과 점·선·면으로 재구분한 육상공간, 수상공간으로 나누어 정리하고 있다.

그 후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도시의 나무심기가 추진되고 있다. 특히, 서울특별시에 의해 1998년부터 4년간 걸쳐 시행된 「생명의 나무 1,000만 그루 심기」 사업에서는 녹화공간을 크게 생활주변, 녹지벨트, 공원과 산림, 3가지로, 도시공간에 존재하는 녹지공간을 점, 선, 면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또한, 이와는 달리, 울산광역시는 「도시녹화마스터플랜녹화지침서」를 작성하여, 도시지역의 녹화공간을 도시골격녹지, 복합거점녹지, 녹지창출의 3가지 관점에서 분류하고 있다.

결국, 이상과 같은 녹지 공간구분은 점·선·면의 녹지형태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공통점으로, 그 이하 세부공간유형이 유의한 일괄적인 구분법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법은 단지 공간구조를 나타내는 개념만이 적용되고 있어, 공간에 대한 녹화방침 등의 실질적인 실천적 방안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어있지 않아, 이를 기준으로 녹지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행정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어려움이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 2.2 일본

일본에는 1974년 도시녹지보전법의 제정에 의해 각 지자체에 녹지의 보전과 창출에 관한 종합적 계획(일명 「녹의 기본계획」)의 수립이 의무화되었다. 이는 녹지와 오픈스페이스의 종합계획으로, 계획 책정 시에는 주민의견반영과 계획내용의 공표가 의무화되어지고 있다. 또한, 주변관련계획과의 조정을 통해 실질적인 최고의 녹지계획으로서 그 위상을 확고히 세우고 있다. 녹의 기본계획에서 분류되고 있는 녹지는 크게 시설녹지와 지역제녹지등, 두 가지로 구분되며, 이 중 시설녹지는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과 도시공원이외의 시설녹지 등과 같은 점과 선적 녹지를 포함하고, 지역제녹지등은 법, 협정, 조례에 의한 지역, 지구의 형태로 지정되는 면적인 형태의 녹지를 말한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일본의 동경도, 오사카부, 아오모리현, 효고현,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를 대상으로, 6개 도시에서 수립하고 있는 녹지기본계획을 검토하였다.

일본의 각 도시별 녹지기본계획으로 검토한 도시별 공통점은 이들 모두가 녹지의 보전과 창출의 2가지 측면에서 고려하고 있으며, 그 지역은 자연환경지역, 시가지주변지역, 도시지역 3가지로 나누고 있는 것을 알았다.

또한, 현 단위이상의 행정구역을 가진 자치체에서 행한 녹지유형분류에 있어서는 녹화방침(보전, 활용, 창출)과 지역성격(자연환경지역, 시가지 주변지역, 도시지역), 그리고 토지소유(공공용지, 민유지)의 기준에 의한 녹화배치(점, 선, 면적 공간)로 구분되어지고 있음을 알았다. 반면, 시단위의 자치체에서의 분류는 도시구조(교외부, 도심 및 그 주변부, 도시지역, 임해부)와 도시계획에 의한 용도지역의 구분이 적용되고 있어, 점, 선, 면적인 개념보다는 공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시책 중심으로 녹화방침을 충복적으로 적용하고 있음을 알았다.

결국, 녹지유형 구분은 녹화 방침, 지역성격, 공간성격(점·선·면), 도시구조, 용도지역, 의 기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적용에 있어서는 적용범위에 있어 그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 다시 말해, 2개 이상 또는 시 이상의 규모를 가지는 광역적인 범위에 적용할 때는 녹화방침을 기준으로 하는 유형구분이 적절하나, 시단위의 적용은 도시구조, 용도지역의 기준이 그 적용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구분되어진 각 녹지공간의 유형들은 점·선·면적인 녹지의 지역별 보전 및 창출과 지역의 범위를 초월하고 있는 항만·해안·하천과 같은 수계와의 연계로, 광역적인 공간의 녹지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음을 알았다.

## 3. 결 론

한국에서 선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녹지유형구분은 점·선·면의 구조적 공간배치 구분법을 택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보전·활용·창출의 녹화방침을 근간으로 한 구분을 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로서 한국에서는 공간 구조를 형성하고자 하는 관점에서의 접근을 행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녹화유도를 위한 접근을 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1974년 제정된 도시녹지보전법이 30여년 동안 4차례의 개정을 거듭하면서, 계획과 행정의 체계적인 구조

구축과 함께 행정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져 만들어낸 일본 녹지행정의 노하우를 나타내는 부분으로 이해된다.

#### 4. 요 약

도시생태환경복원을 위한 녹지기본계획에서 취급되어질 수 있는 녹지유형 구분에 관한 한일비교연구로, 한국의 환경부, 서울시, 울산시의 계획과 일본의 동경도, 오사카부, 아오모리현, 효고현,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의 녹의 기본계획을 참고로, 녹지공간의 구분기준에 대한 고찰을 행하였다.

그 결과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에서의 녹화공간의 구분은 녹지 공간배치를 중심으로 하는 시점에서의 공간 구분을 행하고 있어, 공간 위계질서 체계를 구축함에 유용한 구분으로 되어 있다. 이와 달리, 일본에서의 녹화 공간구분은 관련법규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행정적인 시점에서의 공간 구분을 행하고 있어, 실현성 높은 공간 구분으로 행정적인 관리체계에까지 일괄적인 연계가 가능하도록 고려되어 있다. 또한, 도시공간의 동일한 지역구분을 하고 있으나, 그 지역 내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세부지역을 구분하여 지역성을 남길 수 있는 유연성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비록 법적인 체계 정립이 미비한 한국이지만, 녹화의 계획적인 면보다는 행정적으로 실질성을 가질 수 있는 녹지계획의 관련법규 및 규제 등을 고려한 공간유형구분이 보다 유용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 참 고 문 헌

- 김귀곤, 조동길, 1998, 도시생태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기초연구, 한국환경복원녹화기술학회1(1), pp.70-83.
- 환경부, 1995, 전국 그린네트워크 구상, 환경부.
- 서울특별시, 1998, 생명의 나무 천만그루 나무심기.
- 울산광역시, 1997, 도시녹화 마스터플랜 녹화지침서.
- 일본공원녹지협회, 2001, 녹의 기본계획 핸드북
- 동경도, 2001, 녹의 동경계획, 동경도 도시계획국 지역계획부.
- 오사카부, 2000, 오사카부 광역녹지계획, 오사카부 광역녹지계획사무국.
- 아오모리현, 1999, 풍부한 녹지로 둘러싸인 푸른 숲 계획(아오모리현 광역녹지계획), 아오모리 현도시정비부, ([http://www.city.aomori.jp/toshi/midori\\_hana/green-plan.html](http://www.city.aomori.jp/toshi/midori_hana/green-plan.html))
- 효고현, 1997, 효고현 그린 패닉스 계획, 효고현
- 가나가와현, 1997, 가나가와현 광역 녹지계획, 가나가와현 환경녹정부 녹정과.
- 요코하마시, 1998, 요코하마시 녹의 기본계획, 요코하마시 농정국 기획과.